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바로 깨치는 길 안내

중국 선불교의 초기를 대표하는 달마 스님과 지공 스님. 달마 스님의 제자들이 선맥을 융창시키며 확고한 일가를 이룬 반면 지공 스님의 선맥은 분명하게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능가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았던 달마 스님의 법을 상승한 제 6조 혜능 스님이 지공 스님이 소의경전으로 삼았던 <금강경>을 선종의 소의경전으로 삼아 오늘의 한국 조계종에 이르고 있다.

그런 '족보'와 상관없이 중국 선종의 수행자들이 가장 애송한 두 종류의 텍스트가 달마 스님의 손자였던 제3조 승찬 스님이 지은 <신심명(信心銘)>과 지공 스님의 <대승찬(大乘讚)>이다. <신심명>은 4인 146구 584자로 구성된 명쾌한 시다. <대승찬>도 6인 2구를 한 수로 하여 총 97수 197구로 이루어진 깨침의 소식이다. 지공 스님이 지어 양 무제에게 바쳤다고 전하는 <대승찬>은 '분별해 볼 수 없는 마음'을 골장 가리켜 주려고 하는 선종의 종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대승찬>은 제목 그대로 대승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불이중도(不二中道)의 가르침을 간결한 연구로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것이 <대승찬>의 매력이다. 중국의 선종은 대승불교를 가장 접근하기 쉽게 발전시켜 가장 쉽고 빠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승찬> 역시 부드럽고 간결한 언어로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대도상재목전(大道常在目前) 수재목전난도(雖在目前難觀) 약육오도진체(若欲悟道眞體) 막제선색언어(莫除聲色言語) 큰 도는 늘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도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자 한다면 소리 색 언어를 제거하지 마라.

<대승찬>은 이렇게 시작된다. '지도무난(至道無難)'으로 시작되는 <신심명>이 첫구절에서 대의를 포함하고 있듯,

<대승찬>도 이 첫 구절에 전문의 대의가 함장 되어 있다. 번역 해설한 김태완 원장(부산 무심선원·사진)은 특히 '목전(目前)'의 뜻을 바르게 깨칠 것을 강조한다. '눈앞이란 말은 '일이 목전에 닥쳤다'란 표현이 있듯이 시간적으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이고 공간적으로는 내가 직접 보고 있는 '바로 여기'란 뜻입니다. 따라서 대도란 것은, 마음이란

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바로 여기, 내가 지금 깨어 있는, 내 존재가 있는 이 자리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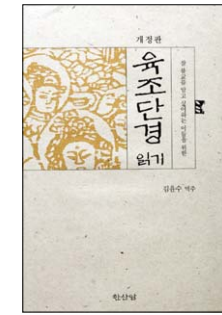
<대승찬>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를 바로 깨치는 길을 안내한다. 그래서 유위의 허상에 얽매지 말고 무위의 진실을 바로 보아 해탈자재 하라고 가르친다. 모두 17회로 나누어진 김태완 원장의 강의를 정리한 텍스트는 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보태는 힘을 갖고 있다. **임연태 기자**



禪으로 읽는 대승찬
김태완 번역 해설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4000원

단경의 전모 파악할 수 있어

육조단경 읽기 김윤수 역주 | 한산암 펴냄 | 1만5000원



현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가 본격 불교 경전 주해서를 냈다. 불교 단체에 신도도 등록한 바도 없으며, 법회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아 불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저자는, 그러나 불교는 우리 삶의 구조와 원리를 분명하게 일러준다고 단언한다. 우리의 무지(無智)가

고통을 일으키는 근원이고, 우리가 본래 가진 지혜를 써서 실상(實相)을 직시한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라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광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불교의 참 모습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입문서를 대보려면 선풍 대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저자가 이 책의 집필에 뛰어든 동기다.

저자는 "우리는 부처다.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지위가 높은 낮은, 재물이 많은 적은, 늙었든 젊었든, 우리가 그 성품을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 육상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속박할 수 있겠는가"라는 육조 혜능의 말이 불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요체라 판단하고, 용어 풀이와 불교의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육조단경> 주해서를 내기로 했다. 게다가 <단경>은 꽤 드라마틱한 스토리까지 담고 있으니 입문서로서 안성맞춤이겠다는 저자의 판단도 있었다.

이 책은 불교의 참 모습을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해 <단경>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고 500항목에 달하는 기초지식과 용어 풀이를 광범하게 곁들여 주해함으로써 초심자도 불교의 요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철 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을 비롯한 기존의 돈황본 번역본들뿐만 아니라 돈황본 이후에 간행된 다른 주요 판본들까지 망라해 비교 검토함으로써 <단경>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구성해 놓았다. 오랜 세월 법조계에 몸담아 온 저자의 이력에 걸맞은 주해의 치밀함이 기존 <단경> 주해서와의 차별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김주일 기자**

자신의 번뇌를 나누고자 하는 의지 보여줘

박노자의 만감일기 박노자 지음 | 인물과 사상사 펴냄 | 1만4000원



한 소년 이 '위대한 조국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 속에는 '영웅적인 소련군'이 독일 여군의 가슴에 칼을 꽂아 죽이는 장면이 있었다.

다. 그것을 본 그 소년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후 그 소년은 성장해 가면서 이 세상에 '폭력을 금하는 윤리체계'가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 기독교에 눈을 들었으나 그들 역시 '애국 애족'을 외치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엠펙터>와 <수타니파타>를 읽고서야 마음의 큰 위안을 얻었다. 그 소년은 내면의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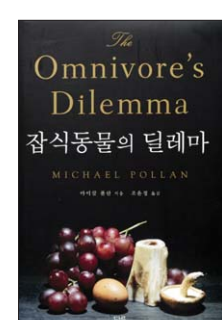
노와 그 원천인 탐욕과 어리석음을 없애고 이 타락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행해야 하는 근본 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소년은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박노자다.

박 교수는 학술논문이나 신문 칼럼에는 쓰기 어려운 블로그 글을 모아 책으로 묶었다. 박 교수는 1차적으로 자신의 솔직한 편견을 글로 써 봄으로써 스스로를 되돌아본다. 이 책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단상에서부터 사회 변혁에 대한 열려까지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특유의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문체로 표현했다.

또한 좀 더 평등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꿈꾸는 만큼 현실에 대한 비판적 냉소가 나는 저자의 슬픈 단상들이 많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피게 돼 있고, 번뇌가 깊어지면 갑자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번뇌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곳곳에서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우리가 음식에 알아야 할 진실 파헤쳐

잡식동물의 딜레마 마이클 폴란 지음 | 조문정 번역 | 다산세상 펴냄 | 2만5000원



오늘을 사는 우리는 먹는 것 하나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음식들은 거의 공포에 가깝다. 과연 무엇을 먹어야 할까. 간단한 것

같지만 매일 끼니를 쟁겨먹는 우리에겐 가장 불안한 딜레마이기도 하다. 저자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올랐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음식사슬의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준다. 그러면서 밝혀지는 진실들은 간혹 끔찍하기도 하

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들이다. 이 책에서 눈길에 가는 것은 마지막 장이다. 저자는 손님을 초대해 '완벽한 식사'를 차리기로 결심한다. 야생 돼지를 사냥하고, 산에서 버섯을 따고, 염전에서 직접 소금을 채취해서 상을 차린다. 돼지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면서, 그리고 토할 정도로 쓴 천연 소금을 맛보면서 저자는 몇 차례 구역질을 한다. 이런 현상은 달고 부드러운 패스트푸드 음식에 익숙해진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러 과정을 시간을 두고 거쳐 만든 것을 우리는 '슬로푸드(slow food)'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란 없다. 단지 푸드(음식일 뿐이다)"라며 "잡식동물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잘 먹을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 된 자연의 음식을 먹을 권리는 잡식동물에게도 있다"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절을 가져가 절하는 법	형건	뜻디의 마을
2	언젠가 이 세상에 업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오대산 노승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희로운 삶
5	부루니의 노래	법현	운주사
6	행복한 미소	성진	개미
7	사찰 100미 100선	해군	불교신문사
8	열불선	덕산	클리어어인드
9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10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천화	상상엔한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 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證明된 精確한 論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자 격 : 정구중단에 승적이 있는 스님, 법사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하신 분

서적구입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외 인터넷서점·불교서점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입상실현을 위한 독보적인 운명서 도리어 대공개!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녀 한해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함께 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되시길 합장 발원합니다. 동안거 수행 정진하시는 대덕스님 및 재가불자님께 **고무신코 만행화**를 소개합니다.

발,마춤형 제작

방한용털신 | 세계절단화

최고의 선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영하 10도에서도 발이 시렵지않고 초극세사 방수원단 콜크중창, 보이털 10mm 지압식 실리콘 동 깔창, 미끄럼 방지 눈슬립 깔창, 수작업으로만 고집하여 만들었으며 이미 대덕스님, 불자님들이 신어보시고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불교의 예절에 있어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로 인한 물건감을 생각하며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영점, 동안거 해제를 맞아 만행화에 만행화신발을 보시, 선물로써 좋은 생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무자녀 한해도 건강 하세요. **대표 박 벽산 합장**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법보시 상담 환영
☎ 본사 :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종각역 2번출구 100m거리)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사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5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신사 불교점 043)846-9081 / 경북(예천) 불타불교점 054)655-2525

통합검색 | 만행화 | 검색

인터넷쇼핑을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